



FM 87.7
KOREAN RADIO BROADCASTING
K R B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프로그램

빠른뉴스

검색

종합뉴스

뉴스홈>이민/비자

한인사회

기사입력 2015.02.02 오후 6:02:11

이민/비자

불체청년 추방유예 DACA 확대조치 오는 18일부터 신청 + 뉴욕주 오늘 이민사기 단속법 발효

한국

USCIS to Begin Accepting Requests for Expanded DACA on Feb. 18

미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will expand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on Feb. 18, 2015. That will be the first day to request DACA under the revised guidelines established as part of President Obama's recent announcements on immigration.

국제

USCIS advises the public to be extra careful to avoid immigration scams. To learn how to identify and report scams, and how to find authorized legal assistance at little or no cost, go to uscis.gov/avoidscams or uscis.gov/evisevistosafes.

경제

Go to uscis.gov/immigrationaction or uscis.gov/action/migratoria and enter your email address to get updates whenever USCIS posts new content about the executive actions.

문화/교육

If you have questions, in English or Spanish, you can call the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63 (TDD for the hearing-impaired); 1-800-767-1833.

스포츠

연예

혜택이 대폭 확대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조치 DACA 신청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Barack Obama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확대됐는데, 불체부모 추방유예조치 DAPA는 오는 5월 중순쯤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기입니다.

종교

메트로 뉴스

===

오는 18일부터 이민서비스국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조치 DACA 확대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Barack Obama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으로 조건과 혜택이 확대된 DACA 접수시작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확대된 DACA는 지난 2012년 시작된 DACA의 기존신청자격보다 완화했습니다.

기존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 입국날짜를 2010년 11월 1일로 늘렸고, 나이상한선인 31세도 없애 30세가 넘었어도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신청비용은 기존의 465달러와 동일하며,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민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나이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취}

민권센터는 상담과 신청을 돕고 있으며, 전화(718-460-5600)를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복취}

지난 11월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조건부 불체부모 추방유예 조치 DAPA는 오는 5월 중순경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이민사기 단속 강화법을 2일부터 발효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부당한 이민사기 수수료를 받을 경우 실형이나 벌금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뉴아메리칸 핫라인 (800-566-7636)을 통해 이민사기 불안과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KRB뉴스 최동한입니다.

많이 본 뉴스

종합 연말 스포츠

- 2월 3일 메트로뉴스
- 2일 폭설 상황 업데이트
- 7번 지하철 운행 중단
- 한인 학생 다수 재학,
- 불체청년 추방유예 DACA
- 오늘부터 뉴욕한인회장 선
- 서민일대주택 주인 대상
- 민승기 한인회장선거 출마

메트로 뉴스

- 2월 3일 메트로뉴스
- 중국인 유학생 사망
- 살아 있는 강아지 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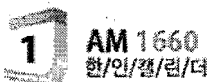
포토 뉴스



2월 3일 메



2일 폭설 상



한인단체/협회/기관 정보

등록부연합회 정보 보기

44 주와도 모의하는 관심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

편리한 서비스

지류발
LIRA
LOTTERY

뉴욕주 이민
뉴욕주 외국인
뉴욕주 시민